

<b>민 진 전</b>	<b>에 진 전</b>	<h1>BUDDHANARA</h1>
----------------------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일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일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일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매일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매달 셋째주 토요일 10시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이달의 법구경: - 어진 이가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물리칠 때  
 지혜의 높은 다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율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3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선사들의 열반 장면도 법문이다":서옹 스님 좌탈 계기로 본 선사들의 열반

고승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한가는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큰 관심사다.

불교에서는 마음자리를 분명히 깨닫는 공부가 완전해지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생사관을 갖고 있다. 육신을 현웃 벗어 버리듯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계의 맥을 잇고 있는 임제선풍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흔적 없이 가는 것을 조사의 가풍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고승들은 중생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죽음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보여준다. 마지막까지 자유자재한 열반모습을 통해 중생들에게 생사가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고승들은 삶과 죽음의 자유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앉아서 이야기 하다가 육신을 벗기도 하고, 서거나 물구나무서서 벗기도 하는 것이다.

스님들의 다양한 열반의 모습을 정리한 ‘적멸의 즐거움’을 펴낸 정휴스님은 “나고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스러워야 그 자기 죽음도 그렇게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한다.

국내외 고승들의 입적일화는 다양하다.

앉은 모습으로 열반에 든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 외에도 근세 고승인 한암 만암 스님이 좌탈(坐脫)했다.

보조국사는 제자들과의 백문백답을 마친 다음 법상에서 내려와 마루에 앉아 그대로 입적했다.

중국 선사들의 행장을 기록한 전등록(傳燈錄)을 보면 여러 선사들의 입적 과정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관계 선사는 몸을 태울 화장나무를 미리 준비해 그 위에 서서 열반에 들었고, 광오 선사는 미리 부도를 만들어 놓고 입적하였다고 한다.

승천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를 붙잡고 서서 열반에 들었고, 보화(普化) 선사는 관속에 들어가 입적했다.

등은봉 선사는 운동선수처럼 물구나무를 서서 입적했고, 법지 선사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시체를 소나무 밑에 드러내 놓아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라’고 부탁한 뒤 앉아서 입적했다.

한편 보통 앉고 서는 모습으로 죽는 것을 좌탈입망(坐脫立亡)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좌사(坐死)일 뿐이다.

현웃 벗듯 아무 때고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을 좌탈입망이라 한다.

앉아서 육신을 벗는 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좌탈(坐脫)인 셈이다.

한암스님의 좌탈입망... 6.25 전쟁중 오대산 100 리 안쪽으로는 국군 작전지역으로 월정사와 상원사를 포함한 모든 사암과 민가들이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모두 2 개월여전 피난을 떠났다.

오직 군작전상 소각하기로 되었던 상원사를 단신으로 지켜낸 한암스님만이 상원사에 2 명의 사미와

공양주보살이 머물러 있을 뿐이다. 1951 년 3 월 22 일 가벼운 병에 걸린 한암스님은 시자에게 물었다.

“오늘이 음력으로 2 월 14 일이지?”라고 말한 후 가사와 장삼을 입고 청량원 선상(禪床)위에 단정히 앉아서 열반에 들었다.

이번에 열반하신 서옹스님께 마지막 남기실 말을 묻는 시자에게 "그 노장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고 했다 한다.

-부다피아 뉴스에서-

## 부지런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

계으름은 모든 악덕의 근원, 열심히 노력해야 해탈 성취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부지런하면 생기는 좋은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함부로 굴지 않고 게으르지 않음(不放逸)은 모든 좋은 일의 근본이며, 모든 좋은 일의 원인이며, 모든 좋은 일의 시작이다.

함부로 굴지 않고 게으르지 않음은 모든 좋은 일 가운데 제일이 된다. 마치 농사를 지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대지를 원인으로 하고 대지를 의지하며 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함부로 굴지 않고 게으르지 않음은 모든 좋은 일 가운데 제일이 된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초목들과 온갖 곡식, 그리고 약초들이 나서 자랄 때 다 대지를 원인으로 하고 대지를 의지하며 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함부로 굴지 않고 게으르지 않음은 모든 좋은 일 가운데 제일이 된다. 마치 모든 뿌리향 가운데 침향(沈香)이 제일인 것처럼. 또 모든 나무향 가운데 붉은 전단향이 제일인 것처럼. 또 모든 물꽃 가운데 연꽃이 제일인 것처럼. 또 모든 물꽃 가운데 수마나꽃(須摩那華)이 제일인 것처럼. 또 모든 짐승의 발자국 가운데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인 것처럼.

함부로 굴지 않고 게으르지 않음은 모든 좋은 일 가운데 제일이 된다. 마치 모든 짐승 가운데 사자가 제일인 것처럼. 진을 치고 전쟁을 할 때 요새가 제일인 것처럼. 누각을 지을 때 서까래가 의지하는 대들보가 제일인 것처럼. 함부로 굴지 않고 게으르지 않음은 모든 좋은 일 가운데 제일이 된다. 마치 모든 산 가운데 수미산이 제일 높은 것처럼. 모든 왕 가운데 전륜성왕이 제일인 것처럼. 모든 광명 가운데 지혜광명이 제일인 것처럼. 모든 무리 가운데 부처가 제일인 것처럼.”

부처님은 이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의 공덕에 대해 강조했다.

“함부로 굴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면 이 생에서도 좋은 과보를 얻고 내생에서도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하기에 게으르지 않으면 반드시 해탈을 얻으리라.”

-중아함 34경 141경 <유경(喻經)> -

불방일(不放逸)은 쉬운 말로 옮기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훈계하거나 당부한 말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방일이다.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 당부한 마지막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불방일을 팔정도에서는 정정진(正精進)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수행을 목적인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명한 <법구경> 에는 아예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문제를 제 2 장 방일품(放逸品)을 통해 다루고 있을 정도다. 다른 경전에서도 게으름을 책망하고 부지런함을 권장하는 말씀이 수없이 나온다.

부처님이 이렇게 불방일을 거듭 강조하는 뜻은 다른데 있지 않다. 게으름은 모든 악덕의 근원이고, 부지런함은 모든 좋은 일의 원인이고 시작이고 바탕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부지런해서 망한 적은 한번도 없다. 반대로 게으름을 떨쳐내지 못하고는 어떤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실패는 그 원인의 절반이 게으름에 있다.

살다보면 가끔은 게을러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럴 때마다 이 경을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읽는다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 불교용어 공부: 공양(供養); 음식이나 꽃을 바치거나 존경심을 갖고 섬기는 것

“밥 먹었니?”, “식사 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라는 말들은 모두 음식을 먹었느냐라는 인사말들이다. 절에서는 “공양 드셨어요?”라고 한다. 식사시간을 알리는 안내판도 ‘공양시간’이라고 표시한다. 이때 공양(供養)은 식사나 음식을 의미한다. ‘시부모 공양을 잘한 며느리’라고 할 때의 공양은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웃어른을 잘 대접하거나 모신 행동을 의미한다. 공양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다.

이와 관련, 가장 익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공양미(供養米)다.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供養米) 삼백석에 몸을 판 심청이의 이야기가 단연 돋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찰의 창건기나 각종 인연이야기를 모으면 이 보다 더 절실하고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가 많다. 햇곡식을 수확하면, 신심 깊은 어머니는 수 십리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새벽 정갈하게 목욕한 뒤 조심스레 머리에 이고 부처님을 찾아 뵙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양(供養)이란 용어는 음식, 웃어른 모시기보다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사찰에서 식사하는 일부터, 불 보살님 또는 스님에게 음식이나 꽃 등을 바치는 일, 존경심을 갖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어른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까지 다양하다. 또 ‘음성공양(音聲供養)’이라고 해서 좋은 음성, 좋은 말로 어른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공양의 한 종류다.

최근에는 ‘대중공양(大衆供養)’이란 단어가 많이 쓰인다. 선원에서 정진중인 스님을 위해 선원대중 전체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붙여진 의미이지만, 선원이외에도 강원이나 그 밖의 곳에서 정진중인 대중에게 공양을 올릴 때 사용한다.

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주었느냐가 아닌, 공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가난한 여인이 모든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등공양(燈供養)을 올렸다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교훈은 바로 공양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준다.

## 법회소식 NEWS

- 불국사 (Buddhanara Temple)에서는 그동안 정기 법회에 자주 나오시지 못하시는 신도님들을 위해서 소식지를 무료로 발송했었습니다. 현재 매달 소식지 발송건수가 50 건 정도입니다. 불국사 홈페이지에 매달 소식지가 올라와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사찰과의 거리상 한달에 한번이라도 오실수 있는 미조리주 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시는 거주자 신도님들에게는 소식지 발송을 중지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차질없으시기 바라고 그래도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신도님들은 따로 사찰로 연락 바랍니다.  
현재 사찰에서는 2004 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으니 잊지들 마시고 달력들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올 겨울에도 예외없이 감기 독감이 유행입니다만 예년보다도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12 월 21 일 12 월 셋째주 일요일에 동기 기도 법회를 하오니 많은 신도님들이 동참하셔서 힘든 겨울을 씩씩하게 건강하게 지내실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도도 올리고 웅심이가 듬뿍 들어간 팔죽도 같이 공양합시다.
- 부처님 되신날일 2547 년부처님 성도재일이 양력으로 12 월 30 일 입니다. 그래서 불국사에서 예년처럼 12 월 27 일 밤 9 시에 입재해서 다음날 12 월 28 일 새벽 6 시에 회향합니다. 작년처럼 부처님 성도재일 철야 참선 정진 및 성도기도를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철야를 하시기 힘든신 신도님들께서는 시간이 허락되시는 데로 밤 12 시까지만도 동참 가능합니다. 밤 12 시에는 부처님이 마지막 정진을 앞두고 드셨다는 유미죽 공양도 있습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12 월 28 일 넷째주 법회는 철야 정진을 같은날 6 시에 회향하므로 11 시 법회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2004 년 갖는 첫 법회는 1 월 1 일 11 시에 갖는 부처님 전에 떡국 공양도 올리고 세배도 올리는 세알 법회입니다. 오후에는 웃놀이도 있습니다. 1 월 1 일 세알 법회는 1 월 4 일 넷째주 법회를 대신함으로 1 월 4 일 11 시 정기법회는 없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께서 11 월 말에 부처님 오신날에 모실 탄생불과 좌대 관계로 한국에 일시 귀국 했었지만 아직 인연이 도래되지 않은 관계로 탄생불은 다음 기회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불국회 (불국사 후원회)에서 주최한 여러가지 행사를 모두 무사히 마치고 12 월 5 일날 귀국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온양에 위치한 보문선원 안영원 양로원에 김장 불사도 신도님들의 진심어린 동참에 힘입어 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 스님이 안계시는 11 월 넷째주 참회기도 법회는 회장 홍범 문정모 거사님과 총무 보광 이진욱 거사님을 비롯해서 신도님들이 합심해서 교리 공부를 겸한 법회를 성공리에 가졌습니다. 다섯째주에는 회장님 내외분의 지도하에 신도님들의 단합차원에서 골프장 법회도 가지면서 신도님들의 마음을 교류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골프장 법회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카페트 시주 동참자:정숙자불자님  
2004 년 달력 시주 동참자 : 현심행 김설아, 정숙자 불자님  
양로원 안양원 김장 배추 시주 동참자: 이묘경, 박계영 불자님  
도서, 향, 초 시주 동참자: 정 신행지, 청정행 정혜주 불자님  
불국사 간판 시주 동참자: 연화행 김효례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주의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시고 업장 소멸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